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에어텍

## 동반자가 콜센터 만든 까닭

### 뉴스카페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기업 관련 불공정 민원' 상담을 해주고 대기업과의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콜센터(1600-0808)를 지난 16일 열었다. 중소기업만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다.

동반위는 서울지방번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변호사 세 명을 상담원으로 상주시켰다. 이들은 전화 상담 후 부족한 사항은 직접 만나 해결해 준다.

상담 내용은 대기업이나 공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발주 취소, 공사 변경, 부당 반품 등과 같은 불공

정 거래다. 대기업에 부당하게 기술을 뺏기거나 기술이 유출된 경우도 해당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에 입점하려는 중소기업을 상담해주고 매칭사업 설명회도 연다. 중국 등 해외 홈쇼핑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도 해당한다. 동반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구매일선장터'에 연 4회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로 개척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불공정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박선영 씨는 1990년대 초 주부가 전 회사에 입사했다. 몇 년 뒤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 프랑스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 공기청정기와 믹서 등 가전제품을 들여와 팔았다.

장사는 웬만큼 됐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다. 제품이 아무리 잘 팔려도 '내 자식 같은 제품'이란 느낌이 없었다. 유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2012년 거래하던 공기청정기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회사를 인수했다. 이 회사가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에어텍'이다.

◆"레드오션 아니다"

박선영 에어텍 대표는 공기청정기를 택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레드오션'(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대형 공기청정기 시장은 포화상태였지만 방마다 놓을 수 있는 디자인 공기청정기를 만들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 아들이 사춘기일 때 방에서 나뉘는 세 그에게 '아들 방에 놓아줄 수

대형제품 시장은 포화 소용. 디자인으로 승부 필터 씻어 사용 '차별화' : 일본·호주에 수출까지

있는 경제적인 공기청정기'라는 제품 콘셉트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오랫동안 해외업체가 만든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필터가 승부처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필터가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는 미세 먼지와 황사였다. 음이온을 내뿜는 수많은 공기청정기가 탈취 효과는 좋지만 미세먼지를 잘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가격과 크기, 디자인, 필터 기능을 차별화한 첫 제품은 2013년 7월 나왔다.

◆크기 디자인 필터 차별화 박 대표는 "음이온을 내뿜어 냄새



박선영 에어텍 대표가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공장에서 공기청정기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를 없애는 공기청정기와 달리 우리 제품은 공기를 빨아들여 미세 먼지를 제거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전기 원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입자 종류와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먼지와 곰팡이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기간 사용하면 필터에 먼지가 달라붙어 쉽게 변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효과를 높여도 확인할 수도 있다. 박 대표는 "검게 변한 필터는 물로 씻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필터 교체 부담도 없었다"고 말했다.

모델은 세 가지다. 밀폐된 작은 방이나 화장실에서 사용하기 좋은 'UFO', 중형으로 벽에 붙여 사

용할 수 있는 '알라딘', 비교적 큰 편에 속하고 이중 필터를 사용해 성능을 강화한 '아바네로'다. 이들 제품은 모두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했다. 박 대표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색상과 디자인에 신경썼다"고 강조했다. 가격은 각각 6만8000원, 9만8000원, 19만8000원이다.

기술과 품질도 인정받았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공기청정기 기준을 통과했고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하는 데 성공했다. 호주 등으로 수출도 했다. 해외에서 20여명의 바이어가 회사를 방문했다.

박 대표는 "에어텍 공기청정기를 세계에 알리는 게 목표"라며 "해외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 (art@hankyung.com)로 응모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NSV의 구조방진용 고감쇠 방진매트 (032)812-2015 △휠보레의 자동차 바퀴 보호장치 (02)2263-2239 △엔티씨의 전자레인지용 압력솔 070-4157-6716 △에어텍의 e-노 필터 공기청정기 (031)798-5676

박람회 출품하는 등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기)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

### 증권리, M&A정보 홈페이지

한국증권기업연합회는 증권·중소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지원센터 홈페이지(www.ahpekmna.or.kr)를 17일 열었다. M&A 수요·공급 등 각종 정보와 국내의 주요 M&A 뉴스, 관련 법규 및 서식 등을 게재

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협력해 얻은 해외 M&A 정보, 사모펀드 등과의 동반투자 및 인수금융지원 정보도 제공한다. 한홍규 증권리 M&A지원센터장은 "이 사이트를 국내의 수요기업과 M&A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 campus JOB & JOY

## 대학생 대상 마케팅 끝판왕 캠퍼스 잡앤조이

2015 성공 취업 전략서

한국경제신문 www.jobnjoy.com

구독·광고는 이렇게

- ★ 구독신청 문의 (02) 360-4841
- ★ 광고 문의: (02) 360-4857
- ★ 전국 주요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COVER STORY

## 성공 취업 전략서

취업전문가들이 '진단' 했다  
2015 취업 키워드는 '직무역량'  
'항공업' '맛집 경영'...정유·화학은 '노인'

2015 공채 대비 좌담회  
'취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학년별 맞춤 취업 로드맵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 맞춤형 취업 로드맵

### CONTENTS

- 남아라 스페셜 공모전·자극중·대외활동
- 《캠퍼스 잡앤조이》서베이 대학생이 사랑하는 루드습·힐스윙부터 스토어 미니스튜디오·올리브영 입도적 1위
- 캠퍼스 밖 강의실 미제 학교 올타리를 벗어났다 에드워드스쿨(After school) 가이드
- 스타트업 보고서 전략 여행의 시작, 마이리얼트립
- 금융권 취업 가이드 공대생을 위한 금융권 취업 전략 7가지
- 이슈체크 지방인재 채용한다더니 '입서출' 채용성명회만 가득 "지방이라 서리워요"
- 채용 트렌드 지방학 실은 구직자를 사할까? 하는 기업들
- 유망 직업 통보기 미래의 주인공을 찾아서 블루오션 직업 10
- 대학생이 만든 열 손수로 읽는 캠퍼스 발달 열 '시달' & '캠퍼스' 열 "열 개발보다 선인자 주는 일이 더 힘들었어요"
- 도파민 세상 나는 대학생 강연가
- NCS의 모든 것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NCS" 뒤에 다양한 지원자 만날 수 있었죠
- 비정규 취업회담 "한국 학생들은 이상해, 유선학 공부하고 구두회사 들어가"
- 취업은 이렇게 풀어요 카메라에 해외사업본부 문이데·오호정 씨 "정법한 커리어보다 플러스 일파(사) 필요해요"
- 멘토링 인터뷰 김희경 통역사 출신 변호사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 스타 인터뷰 도지환 Turning Point
- 풀타임 전보자정성 제직소 단돈 오만 원에 유배 만들어드립시다
- 술 데 있는 열 셀카 매니아부터 인소 매니아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원소 열 5
- 레슬러의 당신을 변화시키는 1분 SPEAKING TIP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어
- Beauty Item 피부 타입별 이종서만 공식 Upcoming Makeup GREET, SPRING
- Daily Look TPO별로 제안하는 맞춤 스타일링 STYLE CALENDAR
- Love in Campus 외국인 남친·여친을 둔 이들의 솔직 토크 "내 남자친구 이름은 마이클"
- 채팅단속통보단 요령 모든 것이 공짜가 되는 마법, 재깁단
- Relay interview 너의 셀카를 보여줘
- 특색정보 흥대론 구입을 앞두고 있나요? 호텔 기자가 말하는 호텔 필자립
- Letters from Abroad 미국·내일인도에서의 유학생들 "늦었지만 괜찮아"
- 환상스케치 상상그림 대학생 서포터즈 4기 수료식·5기 발대식 "상상은 서포터즈 덕분에 꽃피고, 서포터즈는 상상 덕분에 성장하길"
- 남민련과의 온전한 성(성) 상담소 "그날" 의 사랑법
- Culture Job&Joy SALON

## “협심증, 심장수술이 스텐트보다 효과”

### 서울아산병원 교수팀 세계 최초 임상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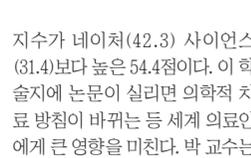
국내 의료진이 심장혈관 여러 곳이 동시에 막힌 협심증에 스텐트 시술보다 심장수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를 세계 처음으로 내놨다.

박승정·안정민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교수팀은 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학술지로 꼽히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 17일자에 '다혈관 협심증에서 관상동맥 우회수술과 관상동맥 중재술의 임상결과 비교' 논문을 발표했다.

임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학전문잡지인 NEJM은 다른 논문에 연구결과가 인용되는



박승정 교수



안정민 교수

지수가 네이처(42.3) 사이언스(31.4)보다 높은 54.4점이다. 이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면 의학계 치료 방침이 바뀌는 등 세계 의료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박 교수는 이번 NEJM 논문 게재가 다섯 번째다.

의료진은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 심장학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8년 7월부터 2013

년 9월까지 아시아 4개국 27개 병원에서 협심증 환자를 최신 스텐트 시술그룹(438명)과 관상동맥 우회수술그룹(442명)으로 나눠 평균 4년6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다. 협심증은 동맥경화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통상 스텐트를 넣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거나 가슴을 열어 좁아진 심장 혈관을 대신 할 건강한 혈관을 이어 붙이는 우회수술을 한다.

전체적으로 사망 및 뇌졸중 발생률에는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스텐트 시술그룹의 재시술 위험이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준혁기자rainbow@hankyung.com

## 소상공인 사관학교 첫 입학생 받았다

### 중기청, 1기 142명 선발

신사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관학교가 17일 첫 입학생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신설·운영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스마인교육(5주) △점포 경영체험(3개월) △멘토링(6개월)을 실시하고 정책자금을 통합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1기생은 신청자 214명 가운데 창업 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통해 142

명이 뽑혔다. 연령별 분포는 20대 19.7%, 30대 31.7%, 40대 31%, 50대 이상 17.6%다. 선발된 교육생의 절반 이상이 20~30대다.

창업아이템 유형별로는 외식업 28.2%, 전문직식기반 21.8%, 기술기반 18.3%, 제품기반 14.1%, 웰빙(3개월) △멘토링(6개월)을 실시하고 정책자금을 통합 지원한다. 수료 후에는 창업자금 융자(1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우수 졸업생은 사업화자금(25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다. 추가영기자 gychu@hankyung.com

용해 제품을 만드는 '정밀모형 제작·판매업' 등이 눈길을 끌었다.

교육생은 18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지역에서 교육 받는다. 교육과정 참여도, 사업계획서 발표 및 평가를 통해 교육생의 80%를 선발, 3개월간 점포 경영체험 교육을 시행한다. 수료 후에는 창업자금 융자(1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우수 졸업생은 사업화자금(25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다. 추가영기자 gychu@hankyung.com

## 축농증 근본 치료법 나와

### 신현우·김대우 교수팀

국내 의료진이 축농증(만성 부비강염)과 콧속 물혹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치료법을 개발했다. 축농증은 국민 6명 중 1명꼴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다. 연구 결과는 '알

레르기임상면역학 저널' 최신호에 게재됐다. 신현우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와 김대우 서울시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은 코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선천성 사이토킨 중 하나인 인터류킨(IL)-25가 콧속 물혹에서 높게 나



신현우 교수

김대우 교수 타나며 이를 차단하면 물혹이 줄어드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미희기자 wise@hankyung.com